



천릿길을 순례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순례단을 향한 불자대중의 찬탄이 이어졌다. 불교중흥을 위한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장정의 회향식이 진행된 10월 18일 불보사찰 통도사는 환희로 가득차다. 취타대의 풍악 속에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추니, 부처님이 설하신 수미산이 바로 이 곳임을 알게 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삼보순례 대장정 회향...‘불교중흥’ 발원

상월결사 삼보순례,
10월 18일 통도사서 회향

19일간 423km 행선 완보

불자대중 환호 속에 회향

통도사 금강계단서 재발원

“적극·진절 불교 나아갈 것”

숫자로 보는 삼보순례

108명	삼보순례단 인원
200명	최대 1일참가자
423km	누적이동거리
1079m	최고 등정 고도(성삼재)
64만보	순례단 완보 회수
無量數	숫자로 표현 못한 신심과 원력

흥의 미래를 엿보게 했다.

순례단은 19일 차인 이날 울주 속영지를 출발해 양산으로 진입, 불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통도사에 도착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선다회 등 사부대중이 통도사 산문부터 길게 줄을 서서 순례단을 환영했다. 통도사 취타대의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순례단에 불자들은 목도리를 공양올렸다.

통도사 숲길에서 일주문을 향해 마지막 행선을 진행한 순례단은 통도사 금강계단으로 향했다.

회주 자승 스님 등 순례단 전원은 맨발로 금강계단 불사리탑을 세 번 돌며 삼배의 예를 올렸다. 대장정 동안 상처부상이 가 된 발이 드러나자 마중을 나온 좌중에서는 감동적인 눈물이 터져 나왔다. 사리탑 탑돌이를 하며 순례단은 그동안의 순

례가 깨달음을 향한 길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 평화와 행복을 향한 이타행임을 나타냈다.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순례단은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의 축원과 함께 이날 순례는 마무리했다.

이어진 회향식에서 자승 스님은 영상법문으로 결사정신에 대해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사부대중이 맡은 자리에서 간절함을 갖고 있으면 중흥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전체 회향식에서는 총도감 호산 스님이 순례에 참여한 한 명 한 명을 대중들에게 소개했다. 한 명씩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어 회주 자승 스님이 주지 현문 스님에게 상월결사 정신을 담은 축비를 전달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423km 천리길을 걸으며 부처님과 같

이 길 위에서 먹고 자고 땀을 뻘 어려웠든 부처님과 같이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며 “상월결사는 상구보리의 씨앗, 자비순례는 하화중생, 이번 만행결사는 자리이타의 열매를 맺게 했다. 이 순례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힘찬 도약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회향식에서는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이 법석에 서서 순례단을 찬탄했다. 성파 스님은 “산에 올라가면 다리힘을 알 수 있고, 물에 들어가면 길고 짧은 것이 보인다고 했다. 만행결사를 하신 분과 하지 않은 분이 너무나 다르다”며 “아낌없이 칭찬하고 싶다”고 법문했다.

끝으로 순례단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대장정 회향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렸다. 진오 스님의 대표낭독을 통해 순례단은 “중생의 이익을 위해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고 이르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저희에게 남은 것은 실천”이라며 “중생 결의로 움직이는 불교, 적극적인 불교, 진절할 불교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아쉬움을 뒤로 회향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불교중흥을 위한 선서화전과 11월 11일 상월결사 2주년 기념법회로 사회 소의 계층에게 순례의 성과를 회향하고, 불교중흥을 위한 장정이 끝이 아님을 알린다.

〈관련기사 4·5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ACRP 공동회장 선출

10월 19~22일 ACRP총회서

2026년까지 5년 간 임기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이 아시아종교인평화회(ACRP)의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ACRP는 10월 19~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9차 총회에서 원행 스님을 공동회장으로 선출했다. 원행 스님의 공동회장 임기는 ACRP 차기 총회가 열리는 2026년까지 5년 간이다.

원행 스님은 공동회장 수락 연설에서 “아시아는 세계의 주요 종교가 탄생한 종교 성지이며 수많은 종교가 공존하는 지역”이라며 “아시아 지역의 종교간 화합은 세계평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CRP 공동회장으로서 남북 종교간 교류를 증진시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다종교 국가인 한국의 종교간 협력을 강화

하겠다”고 아시아 종교간 협력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하고자 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회의로 진행됐다. ‘행동하는 아시아종교인 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에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 아시아 20여 개 국가에서 4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워크숍이 진행됐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종교계의 노력이 소개됐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사고

“포교가 곧 불교중흥입니다”

새로운 인연 因緣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불자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불교계는 유례없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찰뿐만 아니라 교계 언론, 교육, 의료, 해외구호, 포교 단체들이 활동에 극심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은 일선 불법 흥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계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포교는 불교중흥을 이루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불교중흥으로 나아가는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전시 기간 : 11월 2일(화)~8일(월)

장 소 : 동국대학교

개 막 식 : 11월 2일 오후 3시 동국대 본관 4층

주 최 :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추진위원회

주 관 : 동국대학교, 아름다운동행, 상월결사,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현대불교신문, 불교신문, 법보신문, BBS불교방송, BTN불교TV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



인도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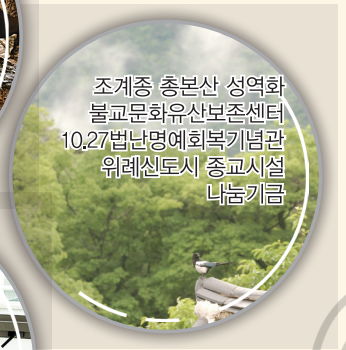
계룡대 호국홍제사 건립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및 광제사 건립



장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10.27법난명예회복기념관 위례신도시 종교시설 대동기금



불교요양원 건립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함께 합니다.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검색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동참문의 정기후원

백만원력 결집불사 02-6273-0108~9



대한불교조계종